

경기도의 모든 ART를 만나다!
전시콘텐츠 공유 플랫폼

www.klookart.org

경기룩아트



특집	02
경기미술협회 2024년정기총회	
신년특집	03
경기미술의방향제시 조윤희	
이달의 작가	04
정영모	
경기인미술인	06
이병채	
미술관탐방	08
MIMESIS AP 7: broken pieces 메미시스아트뮤지움	
컬럼	10
신인류미술가 김진우	
공모전소식	11
경기공모전이모저모 경기미술서예문화대전	
전시리뷰	12
버킷리스트 김성호	
미술계소식	13
사)한국미술협회전국지회장연합회 대표자이취임식	
문화행사소식	14
아카이빙	
지부소식 . 경기룩아트 소개	16
아카이빙	

신년 경기미술의 방향제시

“경기미술의 실질적 변화와 도약, 그리고 행복한 향유자와 예술가”

경기도의 미술정책 속에서 우리 협회가 추구하는 미술인들의 삶과 표현의 자유를 만끽하며서 나아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경기도는 많은 정책들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 문화예술 관련 정책의 대표적인 조례를 살펴보면 거리에 예술에 관한 조례,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에 관한 조례, 공공조형물 건립에 관한 조례, 문화 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조례, 미술품 유통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많은 조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조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전문예술인들은 어렵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시각전업작가의 경우 물감 구입할 비용, 캔버스, 등 재료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작업할 공간이 없어서 집안 구석에 펼쳐놓고 작업하다가 치우고 펼치기를 반복하고, 그나마 작업실을 운영하는 작가는 작업실 임대료 문제로 매번 이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늘상 생활이 되고 있습니다. 능력있고 재능있는 예술가는 많은데 예술을 마음껏 펼치고 작업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작업할 여건이 안되어 붓을 꺾는 분들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일 예로 미술대학에서 매년 졸업하는 인원은 많은데 2~3년 후에 보면 몇 안되는 인원만 남습니다. 그들도 또 몇 년 지나면 그조차도 보기 어려울 지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청년작가 보기 어렵다는 말을 합니다. 중견, 원로작가도 예외가 아닙니다.

중견, 원로작가분들은 청년시절부터 전업작가로서 창작활동에 몰입하며 살아왔습니다. 가정을 이루어 생활비 걱정에 삶이 어렵지만 작품활동이 좋아서 끈기있게 자신을 지켜가면서 지금에 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지원도 없었으며, 작품발표 할 곳도 비용도 여의치 않았습다. 그나마 협회에 가입하여 회원전에 출품하는 것이 전부지만 더 나아지겠지 좋아지겠지 하는 바람으로 견디어 왔습니다. 이제는 시대가 바뀌고 K 열풍이 불고 미술인들도 제법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지만 그렇지 못한 작가들도 너무 많습니다. 작가에게는 열풍이 아니라 창작에 필요한 풍부한 재료와 작업공간 그리고 자유로운 발표의 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기미술협회에서는 발표의 장이 필요한 작가들을 위해 해마다 다양한 행사를 치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신진작가 발굴이라는 이름의 경기도 주최로 <경기도미술대전>을 치루어 오던 행사를 이제는 민전으로 이양하여 올해 60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곳을 통하여 작가로 배출되었고 역량 있는 작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경기미술협회는 그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후원하며 발표의 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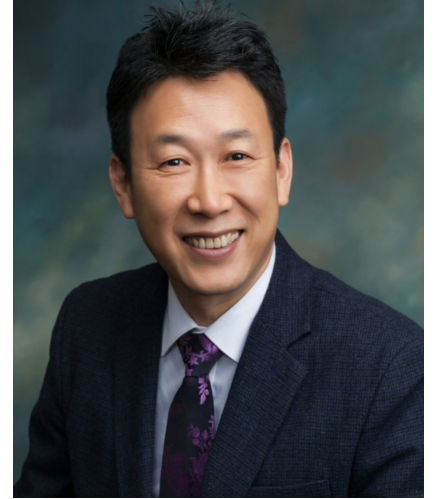
두 번째로 <경기의 사계- 아름다운 산하전>은 31개 시군을 돌며 200여명이 넘는 작가들이 지역의 역사문화, 아름다운 자연경관, 경기지역의 삶들의 곳곳을 돌며 스케치하고 화폭에 담아 지역 미술관에서 발표하는 뜻깊은 전시행사입니다.

세 번째로는 <경기 청년작가 선정초대전>을 열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작가들을 발굴하여 규모 있게 작품발표를 여는 행사입니다. 또한 여기에 그치지 않고 국내 유명 아트페어 및 초대전에 참여토록 하여 작품판매로 연결해 작가들의 의욕을 북돋아 주고 창작활동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경기 북아트> 간행물 제작입니다. 31개 시군에 있는 미술인들이 전시행사 및 단체전 등을 소개하며 다양한 지부행사를 수록하여 홍보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미술인들이 소통하는 계간지 제작입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미술인의 함성전>과 경기도 관내 축제행사, 전국지역에서 하는 전시 참여행사 등 다양한 행사들을 본 협회에서 주최, 주관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보조금 사업예산이지만 경기미술협회라는 책임의식으로 이러한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그 속에서 끈기있게 작가들을 격려하며 경기도 정부가 해야하는 것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수행하면서도 경기도를 대표하는 미술협회의 사무실운영비는 0원입니다.



사)경기도미술협회 이사장 조운희

작가들이 협회운영을 위해 시간을 쪼개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보조금사업의 정확한 정산서 제출을 위해 사무업무도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작가가 작업보다는 협회운영의 현실 때문에 전문분야가 아닌 행정업무에 매달려 봉사를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운영비를 통해 전문행정직원을 두고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 더 앞으로 경기도가 가져갈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전국지역 및 도와 광역시에서 주최하고 있는 아트페어가 운영되고 있는데도 경기도만이 유독 대규모 아트페어가 없다는 것입니다. 미술인들은 예술조례와 정책 속에서 조화롭게 작업을 할 수 있다면 근본적인 생활고는 경기도 정부가 모든 것을 책임지며 도와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정책적 도움 다음은 작가 스스로 판매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된다면 미술가들의 삶 속에 스스로 자긍심을 위해 노력하며 그에 따른 창작의 즐거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둘째로 우리나라의 미술의 거리 하면 인사동을 떠올립니다. 요즘은 인사동에 제주갤러리, 경남갤러리, 경북갤러리, 부산갤러리, 충남갤러리, 등이 생겨나고 있으며 강원도에서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민을 위한 발표의 장을 해당 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나 인천의 경우는 서울과 인접하여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하지만 넓게 보면 지금은 국제화 시대에 좀 더 나아가 K-ART의 확산과 비전을 생각하면 프랑스 파리나, 현대미술의 본고장 뉴욕에 경기갤러리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 우리 경기미술인들의 뿐 아니라 경기도가 K-ART 확산의 선구자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과거 미술의 도시 프랑스 파리 작은 동네에서 여러 작가들이 서로 어울려 작품을 하고 이야기 꽃을 피우고 많은 작가들을 탄생시켰습니다. 한 동네에서 바르비종파가 생겨났지요...

경기미술협회는 미술인들이 작업 속에서 지역과 함께 미술이라는 예술 장르를 발전시키고 도민의 질 높은 향유를 만끽할 수 있도록 노력할 뿐만 아니라 작가 양성과 예술가의 의욕을 북돋는데 힘을 다할 것입니다.

이에 첫째로 지속적인 사업의 안정이 될 수 있도록 행정운영비 지원이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작품발표의 장에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되어야 하며, 이에 경기아트페어가 속히 만들어져야 합니다.

셋째로 국제화 속에서 적극적으로 도전하며 그곳에서 인정받는다면 우리 경기도가 미술의 본고장이 될 것입니다. 이에 경기도 국제갤러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경기미술이라는 장르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의 미술발전을 위해 신년 바램을 글로 적어 보았습니다. 경기 31개 시군구 지부의 미술인들도 실현 가능할 수 있도록 이에 뜻을 모아 함께 적극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미술협회 (사)경기미술협회 정기총회 2024년 제66차 정기총회

경기미술협회의 제66차 정기총회가 2024.2.25(일) 경기아트센터에서 개최되어 2023년도 예결산안의 결의와 공로작가 및 경기미술인상 등 감사패전달과 시상식을 진행하였다

지부소개 및 내빈소개

11



이번 정기총회와 시상식은 조운희 경기미술협회장을 비롯해 대의원 등 145명이 참석해 진행됐다. 이자리에서는 임기를 마친 각 지부 미술협회 회장에게 공로패 전달식도 있었다.

경기미술인대상 시상식에서는 도지사상에 이상서(경기광주지부), 청년작가부문의 김성지(안산지부) 등 2명이 각각 수상했다. 이어 경기미술공로상 부문 경기도의회 의장상에 안광수(파주지부), 백영숙(하남지부, 이준석(오산지부) 3명이 수상했다. 경기미술인상 경기미협 이사장상은 원로작가부문, 공로상부문, 올해의작가상 등 90여명에게 수여됐다.

조운희 이사장은 축사에서 “경기도 31개시군구의 지부의 많은 대의원들의 참석은 뜻을 모아 가고자 하는 방향이 같음을 의미하며 앞으로도 늘 함께 해주시는 경기지회 지부장들의 행보를 응원하고 더욱 발전하는 경기미술협회가 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경기미술협회 홍보대사로 가수 조관우(대표곡-꽃밭에서)께서 위촉됐으며 경기미술협회 발전과 홍보를 위해 작가로서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출처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http://www.kihoilbo.co.kr>)



점묘미학의 해학(諧謔) 가득한 고향(故郷) 이야기

한국화가 정영모

글. 김재덕 미술컬럼니스트

서 울 근교의 한국화가 정영모의 작업실은 소박하고 아담하여 옛 시골집을 방문하는 느낌의 정감 있는 작업실 분위기다. 그동안 쌓아온 화력만큼 작업실 안은 채료의 농익은 향기와 벽면을 가득 채운 작품들이 시선을 가득 메우고 있는 풍경이다.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에서 한국화를 전공한 그는 전업작가의 길을 선택하여 고난(苦難)한 창작의 길을 걸었으나 30중 후반 현실적인 삶의 문제 앞에 고심하게 된다. 작가로서 누구나 한번쯤은 겪었을 현실적 갈등 이지만 작가 정영모는 긴 여행을 통해 막막했던 당시의 작업에 대한 슬럼프를 이겨낼 수 있었다. 중국에서 동남아시아와 인도로 이어지는 긴 여정을 통해 얻어진 소중한 경험과 다양한 문화의 이질적 느낌으로 작가는 그동안 무겁게만 가져왔던 작업의 짐을 내려놓고 자유로운 표현의 방식으로 마음의 부담을 다스리는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정영모는 정통 한국화의 고정관념을 벗어나 순수예술과 실용예술 사이의 벽을 허물고 다양한 오브제와 기법을 활용한 창작활동으로 해학(諧謔) 가득한 고향(故郷)의 이야기를 감상할 수 있는 작업을 하고있는 현대회화작가이다. 그의 작업 과정에서 보건데 점묘화를 이루기 위한 채료와 도구의 자유로운 혼합 사용으로 한국화가나 서양화가의 구분 을 짓는다는 것에 큰 의미가 없어 현대회화작가로 통칭하는데 더욱 공감되리라 본다.



A Story of Home Town 72.7x60.6cm

한국화가 정영모

초기 작품에서 작가는 한국화의 기존 화풍과 형식의 고정관념을 탈피하여 필선과 채료의 경계로부터 자유로워지며 현대회화 표현 감각의 창의적 접근을 이루었다. 그 표현 방법으로 닥종이를 오브제로한 부조(浮彫)와 혼합채색의 작업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그로부터 잉태된 “고향이야기” 연작(連作)은 동심의 가치관과 소박한 이야기를 담은 추억 속 회상될 수 있는 마음의 고향이야기들이 표현되었다. 방법적으로는 부조(浮彫)로 화면을 구성한 후 혼합채색으로 표현한 작품들로 2004년도에 서울의 한 갤러리의 초대전을 통해 발표되며 이후 국내외 많은 아트페어에 초대되며 활발한 후기작품 활동으로 이어졌다.



A Story of Home Town 90.9×72.7 Mixed coloring

작가 정영모의 근작은 화면의 부분에 도트(dot)를 사용한 점묘기법으로 표현을 확대하고 부조(浮彫)를 최소화하여 전작들의 단순성을 표현의 회화적 영역으로 좀 더 접근토록 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캔버스에 한지나 닥종이를 접합하여 전작의 부조 표현에 나타난 균열과 작품의 내구성에 대한 단점을 보완하였으며, 재료적으로는 자유로운 혼합채료를 사용하여 복고적 표현방식을 넘어서는 현대회화로의 아르누보(art nouveau)로 진보적 발상을 이루었다. 다양한 오브제의 사용에 반해 소재면에선 한정된 단순성으로 호랑이, 까치, 초가집, 둥근달과 감나무, 배꽃등 서정적 정취가 묻어있는 해학 가득한 고향의 이야깃거리가 정감 있게 나타난다. 근대의 서정적 화가 장욱진의 정감 넘치는 그림에서 나타나는 아이 가족 등 유아기의 미술 또는 원시적 성격에 뿌리를 두고 있는 문명의 때가 묻지 않은 향토적 풍경의 순수함의 근원, 순수함이 표현된 조형의 모더니즘(modernism)적 간결함을 향유하게 해준다. 화가 정영모의 작품은 관찰한 대상을 정확하게 재현해 내기보다 마음의 눈으로 관찰한 대상을 독창적인 형식으로 표현해내고 있다. 재현에 대한 기법적인 아카데미즘의 탐구보다 형식에 매이지 않고 좀 더 자유스러운 그림을 그리고자 모더니즘적 근원의 영향성이 있으며 우리의 삶과 질곡이 함께 묻어 있고 우리의 옛 모습이 그의 작품 안에 반추되어 우리의 자화상 같은 그의 작업과정은 나아가 예술과 일상의 경계를 지우고 우리네 고향의 이야기로 따뜻하게 감상자들의 심성 속으로 스며든다.

“정영모는 한국적 정서나 정감을 몹시 사랑한다. 따라서 그의 그림은 관람자를 괴롭히지 않는 재미있는 펀놀로지(Funnology)의 그림이다. 한국의 자연을 통한 인간관계와 온유한 사랑의 모태인 고린도적 신앙심의 평화를 그림에서 관람자와 교감하려 하고 있다. 그의 작품 의도는 그림의 투시체계에서 참으로 절묘한 문화적인 회화적 힘을 지니고 있다. 색채의 깊이감에 대한 표현을 드러내기 보다는 밝고 상쾌한 단면색의 평면효과를 극대화한 마티스의 색의 조화처럼 정영모는 그림에서 주로 황금이미지의 노랑색과 여백의 상징인 하얀색, 풍요의 상징인 초록색과 성숙한 열정의 빨강색을 평면배열로 즐겨 사용하고 있으며 닥종이 표면의 약간 울퉁불퉁한 질감위에 그리움을 불러오는 이원구조의 소박한 에스리를 심상화 하는 작업을 한다.”

(손소운 - 전시서문중)

구스타프 클림트(Gustav Klimt)의 작품은 순수 회화영역의 창작품이지만 공예품 이상으로 장식성이 강한 작업을 하는 화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러한 순수 예술성과 장식성이 요구되는 공예의 조합으로 고전주의나 역사주의에 기인되는 고전적 양식을 현대적 감각으로 발전시키고자 한 표현의 발전 주장의 영향으로 작가들은 대개 고전과 전통으로부터 새로운 세계를 탐닉하여 새로운 양식의 창조를 지향하며 자연주의, 자발성, 단순화 및 기술적 완성도를 이상으로 추구하게 된다. 최초의 ‘장식 예술’이라는 장르를 강연하였던 모리스(William Morris) 역시 고전적 양식의 단순한 모방을 거부했고, 당대의 삶에서 면면이 반복되어오던 복고적 예술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들의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표현의 미적 이상이 중세에 있으므로 고전과 모던의 절묘한 조합을 이루었던 모리스와 달리 아르누보의 예술가들은 그런 복고적 태도 없이 곧바로 ‘모던’을 지향하고 표현했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정영모작가의 지향점은 고전을 바탕으로 한 복고적 기존의 예술보다 발상의 변화를 꾀하는 진보적인 미술이론으로 정립하고 천착하는 시대적 도전이며 창의적 작가정신의 발로라 할 수 있다.

국내외 수많은 아트페어를 다녀보면 최근의 회화 경향이 복고적 표현 회화의 작품보다 유독 창의성과 독창성 짙은 대중성 있는 회화작품들이 많이 전시되어있는 풍경을 접하게 된다. 고전적 표현의 회화작품보다 어느 정도의 장식성이 있는 진보적 창작 작품들 또한 컬렉터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현대 미술시장의 당연한 시대적 요구와 흐름일 것이다. 회화작가에게 장식성의 운운은 어찌 보면 작가 정신에 반하는 행위일지 모른다. 하지만, 현대적 창작활동의 흐름에 편승하는 당연한 모더니즘적 작가활동이 없다면 작품의 다양성과 다변화는 실종되고 획일화로 비취질 수 있으며 변화 없는 고전풍의 되풀이 역사가 현대 미술시장의 발전을 저해하게 될 것이기에 진취적 작가들의 다양한 연구와 창작활동은 현대미술의 최전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국내외 아트페어등에 활발히 소개되는 현대미술작가 정영모의 열정 넘치는 창작활동에 앞으로의 더욱 큰 정진을 기대하게 된다.



A Story of Home Town 72.7x60.6cm Mixed coloring

자연을 담는 색채미학

서양화가 이병채

글. 김재덕 미술컬럼니스트

서양화가 이병채는 1965년 전라남도 고흥에서 태어나 장흥, 강진, 완도, 영암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며 성장 했다. 평생 교직생활을 하신 아버님을 따라 유년시절 대부분을 시골(강진, 완도, 영암)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초등학교 5학년에 광주로 이사와 그곳에서 중,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게 되었다. 많은 화가들이 선천적 재능과 후천적 노력이 겸비되었듯이 어린 시절 이병채도 그리기를 좋아하고 손재주가 있어 미술활동이 즐거웠다. 그러한 취미활동으로 중학교 시절 미술실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졌던 이병채는 미술반 활동을 계기로 고등학교 1학년부터 본격적으로 미술 전공을 하기로 마음먹게 되어 미술대학 입시 준비를 하게 된다. 교직 생활을 하는 부친의 영향으로 미술학도로서 창작인의 꿈을 키워 가는데 큰 불편함이 없었기에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회화과와 동대학원을 마치게 되었다. 학업을 마친 서양화가 이병채는 지난 4월 갤러리 루벤에서 의 개인전등 총24회의 개인전과 많은 단체전 참여로 현재 전업 작가로서 활발하고 왕성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으며 한국 화단의 중추 세대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병채의 창작 세계의 자연은 뚜렷한 실체를 단순히 표현하는 것이 아니다. 화가 이병채의 자연은 그만의 질서와 법칙의 함수가 있으며, 창작의 주체인 작가는 하늘과, 바다, 대지를 화면의 분할과 자신만의 색채미학으로 풀어 나가고 있다. 색에 대한 이미지만으로 굳이 인상주의 느낌과 비한다면, 빛에 관계된 색의 변화무상한 조화로 아련한 이미지를 연출해주시기도 하며 화면에 표현되는 실체가 없는 이미지로 초자연적인 신기루의 세계를 여행하게 해준다. 이병채의창작세계는 단계를 이어가는 색채의 병합으로 자연의 생성과 소멸의 철학을 이야기 하고 있다.



자연-공감, 23호, Acrylic on canvas, 2015

“화면은 밖으로 진출하는 색채와 안으로 스며드는 색채, 양자의 대조적 특성에서 공간 구조의 이중성을 드러내게 되며, 시각의 내향성과 외향성을 유도하는 표현 행위는 색채들 상호 작용에 의한 내적 긴장감과 더불어 화면에서 종적으로 작용하는 운동감을 부여하게 되는 것이다.”

- 이병채 작업노트중

이병채의 작업에서 보여지는 이미지의 전개는 일차적으로 물감이라는 물성과 다양한 도구의 사용으로부터 얻어지는 터치와 마티에르가 복잡하게- 어우러지게 된다. 그리곤 중첩되는 색채와 흐트러진 형태, 자연의 경계를 만들어 주는 경직 되지 않은 수없이 교차되는 자연스러운 선과 점의 조합이 있다. 이러한 전개가 앞의 물성에 의해 대지나, 바다같이 드넓은 공간을 확보해 주고 더욱 심미적으로 표현이 되며, 이들이 자연스레 어우러져 하나의 독자적인 이미지로 작가만의 개성과 자연의 표현으로 정리 된다. 이 이미지는 관람객으로 하여금 자기만의 조화감을 갖춘 색채로 해석 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주게 된다. 조화감이란 선호·자연·미·안정 등의 감정이 수반된다. 특히 선호의 감정과 조화감은 관계가 깊어, 조화를 이룬 것은 선호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병채의 “자연-공감” 시리즈 작품을 감상하는 이들이 작품 앞에서 작가의 세계를 공감해 주는 데는 화면 안에 그 색채가 조화감을 잃지 않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최근 미술시장의 동향을 보면 흥행을 염두에 둔 표현물들이 두드러지게 보여 지는 현상이 있다. 대중이 쉽게 보고 쉽게 느낄 수 있는 뚜렷한 형태를 표현하는 기능적인 주제 선택과 화려한 색채로 예쁘게 화장을 하고 주인을 기다리는 많은 작품들. 창작의 산고보다는 시장의 원리에 순응하는 작가들이 많이 보여 지는 현상이 조심스레 염려되기도 한다. 물론, 작가의 개인에 따라 필요에 의한 사실적 표현 전체를 부정 하는 것은 아니다. 파울클레는 “진정한 창작은 보이는 것을 재현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쉽게 볼수 있는 뚜렷한 형태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만의 조화감을 갖춘 색채로 대자연의 무한한 세계를 상상하게 해주는 서양화가 이병채의 작품에서 그가 추구하는 창작 가치와 색채미학에 대한 연구 열의를 느끼게 된다. 나아가 그의 작품세계가 젊은 작가들로 하여금 진정한 창작의 세계를 생각해 보게하는 지표가 되길 희망해본다.



자연-공감, 30호, Acrylic on canvas, 2015

“오묘하고 환상적인 느낌을 주는 다양한 색. 예로부터 색은 누군가에게는 함부로 가질 수 없는 욕망의 대상이기도 했다. 우리 인류가 수천 년 전부터 계속된 색에 대한 갈망, 이 신비한 갈망의 원형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 우리는 불행 하게도 지금까지 자기만의 고유한 색깔을 가지고자 고민해 본 적이 거의 없다. 오히려 자기만의 색이 주는 신비함을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자기만의 고유한 색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그 색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사람마다 잠재된 자신만의 색채는 그들의 성격이나 내면의 상태를 이해하는데 까지도 도움을 주기도 하기에 색채미학은 창작인 에게서 떨 수 없는 중요한 영역이라 할 수 있다.”

(김선현, 차병원미술치료교수)

경기도미술관
 GYEONGGI
 MUSEUM OF
 MODERN ART
 2024

북카페가있는 테마미술관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은 미메시스 아티스트 프로젝트의 일곱 번째 전시인 'MIMESIS AP 7: broken pieces' 파편들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MIMESIS AP 7에 선정된 박수형, 서민정, 김선영이 자신들의 그림 위에 존재하는 <파편들>에 스스로를 빚대어 표현하는 방식을 살펴본다. 이들은 흩어지고 모여 각자의 역할을 다하는 세상의 파편적인 것들과 그 파편적인 것들이 완전한 모양을 갖추게 되는 과정에 주목한다. 부분을 상징하는 소재들은 그림으로 표현되면서 분절하거나 분열하고, 또 겹치며 합하여진다. 이 모양새는 세 명의 작가가 구조/부분과 전체의 형태를 감각하는 방법에서 생겨난다.

MIMESIS AP7: broken pieces 파편들 / 2024년 3월 20일 ~ 2024년 5월 19일



MIMESIS ART MUSEUM

Mimesis Art Museum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은 대지 1,400평에 연면적 1,100평으로, 지상 3층(지하 1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다양한 크기의 여러 개의 전시 공간이 하나의 덩어리에 담긴 설계로 유명하다. 다양한 곡면으로 이루어진 백색의 전시 공간은 가급적 인조광을 배제하고 자연광을 끌어 들여 은은하고 차분한 분위기를 연출하며 시시때때로 변하는 빛의 향연을 볼 수 있는 것이 큰 특징이다.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은 상업적인 전시공간으로 방문객을 유혹하는 것이 아닌 건축자체로 전시 이상의 큰 즐거움을 선사하는 공간이 되고 있다. <알바루 시자가 설계한 브라질의 이베리 카르마구 미술관보다 전세계적으로 더 많은 방문객을 끌어 모을것>이라는 포르투갈의 유명한 건축사진작가 페르난두 게하의 말처럼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은 개관 전부터 각종 해외 매체에 소개되었으며, 국내외 건축가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금도 방문객들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은 앞으로 <상상력을 자극하는 예술>을 적극 소개해나갈 예정이다.



박수형의 그림 속 식물 파편은 사람이다. 박수형은 잔디와 잡초, 인물 연작을 유화로 그려 왔다. 화면 속 풀과 잔디는 깎이고 방치되고 구분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잔디 속에 섞여 있는 잡초는 사회 기준에서 벗어난 길들지 않은 자연 혹은 본래 모습을 상실한 누군가를 상징한다. 박수형의 전체 작업 속에서 은유적이거나 직접적으로 언급되는 소재의 상관관계들은 작가의 양가감정을 대변한다. 서민정의 작업에서 두드러지는 파편은 부서진 형태를 이루는 붓질이다. 끊기듯 그어진 먹과 주묵의 붓질은 그 자체로 그림 위에서 작가 자신을 담은 형체가 되었으며, 대상을 깨뜨리는 움직임이 되었다. 깨진 것들의 재구축은 결과적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깨진 모양 그대로 그 자리에서 온전해지기도 한다. 김선영의 파편은 원래의 것과 미묘하게 합일되지 않은 형체들이다. 김선영은 콜라주 기법을 통해 장지에 채색으로 완성한 자신의 그림을 다시 해체하였다. 신체 감각이 외부 세계와 함께하지 못하고 단절되었음을, 온전한 형태가 아닌 분절된 모습으로 드러낸다. 분절된 형태는 화면 속에 스며들어 하나가 되기도 하고, 따로 떨어져 나와 걸돌기도 한다. 박수형의 잘린 풀, 서민정의 깨진 형태, 그리고 김선영의 떨어져 나온 형체는 예술가의 감각으로 파편화된 것들을 다시 모아 하나로 구축한다는 면에서 같은 선상에 놓여 있다. 예술가가 인식하는 세상을 이미지화할 때, 소재를 향한 그들의 감각은 파편적으로 흩어져 캔버스 위를 맴돈다. 그들이 세상의 한 구성원으로서, 예술 작품이 세상의 한 구성물로서 파편적인 역할을 다하는 이번 전시가 그동안 일상에서 지나쳐 버렸던, 떨어진 파편들을 하나씩 모아 만든 완성된 세계 속을 거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지고 구축하는 서로 다른 힘에 대한 작가의 관심에서 비롯되며, 힘이 또 다른 속성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대한 연구로 이어진다 할 수 있다.



김선영은 우리 주변부의 버려진 풍경에서 경계의 안과 밖을 포착해 그려낸다. 그 경계선을 희미하게 흐트러뜨리고 대립하는 존재들을 화해시키며 평화를 찾고자 한 작가는 사실은 이 행위가 그저 현실에 안주하는 것은 아닐지 의문을 품는다. 김선영의 2013년에서 2015년 사이의 작업은 개인에서 사회로 본인의 세계가 확장되어 가던 시기의 그림들이다. 작가가 만난 사회는 울타리라기보다 사건 덩어리의 세계였다. 사건의 장소를 뜨지 않고 바라보는 존재들, 가담하지 않고 그 주변부를 떠도는 마음들은 하나하나가 완벽한 세계였다. 버려진 장소와 소재에 스스로를 동일시하여 그려내던 방식은 바라보고 관찰하여 그리는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작가의 말에 의하면, < 나를 닮은 풍경 >에서 < 내가 바라보는 풍경 >으로 바뀌어 갔다. 2017년 이후 김선영은 실체를 알지 못하고 막연하게 느끼는 어떠한 것들을 더듬어 실체를 찾아가는 것에 매력을 느꼈다. 이는 머릿속에 이미지로 있던 것들이 실제로 존재하며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볼 수 있는 < 진짜 >인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 되었다. 자신이 경험하고 체험한 것을 그려낸다는 의미에서 김선영의 작업은 추상적인 작업이 아닌 사실적인 작업이다. 그러나 보는 이들은 그의 작업이 사실적인 접근이라기보다는 은유와 비유가 많은 문학에 가깝게 느끼는데, 그 이유는 작가가 몸으로 느껴 실제로 존재한다고 느끼는 감각이 보는 이들에게는 막연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점 때문에, 작품명에서 유추할 수 있는 단서들과 이미지 속에서 언뜻언뜻 보이는 형상들로 우리는 그림 속에 존재하는 사건들을 상상한다. 김선영의 그림 속에서 완벽한 하나의 형태를 이루지 못하고, 겹치고 배경에서 따로 떨어져 나온 듯한 형체들은 작가 본인의 몸이 감지하는 세계가 우리가 느끼는 세계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지 않고, 미묘하게 다름을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돌아가는 길」(2020)은 서민정 작가가 제주도의 거문오름에서 마주한 풍경을 담은 작품이다. 올라간 길 그대로 내려오려다 다른 길로 잘못 들어선 곳에 역세밭의 풍광이 펼쳐졌다. 그림의 제목인 돌아가는 길은 문자 그대로 되돌아가는 길을 의미하는 동시에 다른 지점을 통해 빙 둘러 가는 길을 뜻한다. 세 개의 캔버스에 이루어진 이 작품은 마치 성상화의 삼단화처럼 왼쪽, 가운데, 오른쪽의 화폭에 각기 다른 내용이 표현되었다. 오른쪽의 < 쓰러져 있는 역새 >, 가운데의 < 서 있는 역새 >, 왼쪽의 < 길 >을 유심히 보니, 자연스레 보였던 풍경이 새삼 달라 보인다. 작가는 이 그림 속 하늘을 채색하는 것에 공을 들였다. 너무 파랗지도, 너무 밝지도, 너무 어둡지도 않게 그려진 하늘은 낮인지, 밤인지, 아침인지, 새벽인지 명확한 시간대를 알 수 없게 한다. 이는 보는 이에 따라서 이승에서 저승으로 가는 길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묘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주묵(붉은 먹)을 쓰게 된 계기는 건강의 문제로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몸이 시시때때로 떨리게 되었던 그 시기의 감정과 맞닿아 있다. 그전까지 분체를 차분하게 쌓아 올리는 방식으로 색을 만들던 서민정은 빨간색, 주황색, 형광에 가까운 분홍색을 전면에서 사용하며 본인의 상태를 표현하였다. 또한 이 시기의 작업에 새롭게 나타난 것은 표현 기법의 변화이다. 장지의 밝은 색을 그대로 노출하여 색을 올리던 방법은 어두운 색을 먼저 칠하고 밝은 색으로 향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고, 완전한 형태를 섬세하게 그렸던 방법은 끊기듯 짧아진 필체로 변화하였다. 달라진 표현 양식들은 작업 세계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하였고, 또 다른 목표로 향하게 하였다. 어두운 색을 먼저 화면 전체에 채색함으로써 그림의 톤은 한 층 깊어졌으며, 분절된 선들은 그 자체로 하나의 독특한 기법으로 완성되어 갔다. 서민정의 작업에 관해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작품은 「땅과 불꽃」(2023)이다. 가족의 자연장을 진행하기 위해 화장을 하며 바라보았던 그 장면과 그때의 오동나무 상자에서 느껴지던 뜨끈한 온기는 활활 타오르는 불, 꺼져가는 불,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이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 이는 부서

「MIMESIS AP 7: broken pieces 파편들 전시소개글」- 정희라,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 수석 큐레이터 (정리, 편집부)



키네틱 아트의 새로운 모색을 탐구하는

신인류미술가 김진우

작가 김진우는 경북 안동출신의 아티스트이자 엔지니어이다. 경희대학교 대학원에서 서양화를 전공하고 평면 작업을 해오던 그는 삼성교통박물관의 아트디렉터 활동이 인연이 되어 입체작업과 엔지니어적 창작활동에 대한 막연한 갈망을 풀어 나가는 계기가 되었다. 평면 작가로서 가지지 못해 부족했던 기계공학적 지식을 채우고자 했던 그는 하버드 건축대학과 MIT 미디어랩에서 공부를 하는 열정으로 채워 나가기도 했다.

어찌보면 평면이든 입체이든 그의 작업은 이미 뉴 프론티어 정신이 항상 기초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그의 성장기 초등학교 시절 5~6학년 당시 보관된 드로잉 작업노트를 보면 지금의 드로잉에 대한 근원이 이미 담겨져 있음을 볼 수 있다. 기성작가가 되어 캔버스에 그려진 평면작업에서도 나타나는 인체와 금속 소재의 묘한 접합은 지금의 키네틱 아트 작업의 연습과정 내지는 드로잉작업으로 보일만큼 하나의 작업 연장선으로 이어지는 발전과정을 볼 수 있다. 2000년 중반부터는 인류의 근원에 대한 성찰과 ‘로봇’, ‘인간’, ‘자연’에 관심을 두고신인류에 대한 발견과 가능성을 가변 설치 작업을 통해 표현 하였으며, 이제는 키네틱아트의 범주를 넘어선 더욱 복잡다난한 기계공학적 창작 활동을 시도 하고 있다.

글. 김재덕 미술컬럼니스트



쥬크박스 90x60x50 cm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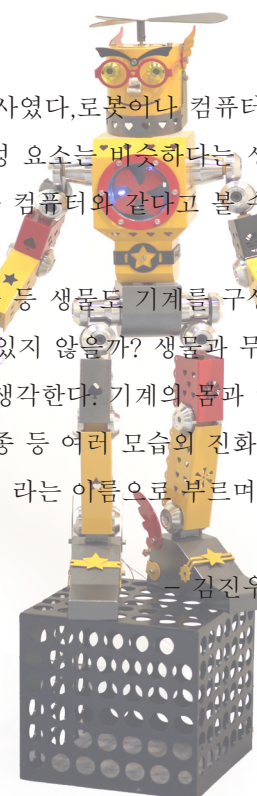


2 Installation A Paradigm Shift

“기계와 인간, 동물과 식물 등 자연과학 및 공학은 나의 주된 관심사였다. 로봇이나 컴퓨터, 자동차, 비행기 등의 기계와 인간은 서로 다르지만, 그들을 구성하는 각각의 구성 요소는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 본다. 예를 들어서 인간의 심장은 기계의 엔진과 같고, 음식은 연료, 뇌는 컴퓨터와 같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지구

상의 모든 물질은 끝없이 진화를 한다. 먼 미래에는 인간과 동, 식물 등 생물도 기계를 구성하는 금속, 엔진, 모터 등의 무생물과 유전자를 소통하며 얽혀 진화해 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물과 무생물의 경계를 허물고 서로 유전자를 나누며, 아주 복잡 미묘한 진화를 할 것이라 생각한다. 기계의 몸과 인간의 뇌를 가진 종족, 또는 인간과 동물, 기계의 교배종, 동-식물과 기계의 교배종 등 여러 모습의 진화를 상상해 본다. 자연 및 기계까지도 융합하고 통합해 새로 태어난 인류를 “신인류” 라는 이름으로 부르며 아무도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긍정적인 진화를 거듭 시켜 볼 것이다.”

— 김진우 작가노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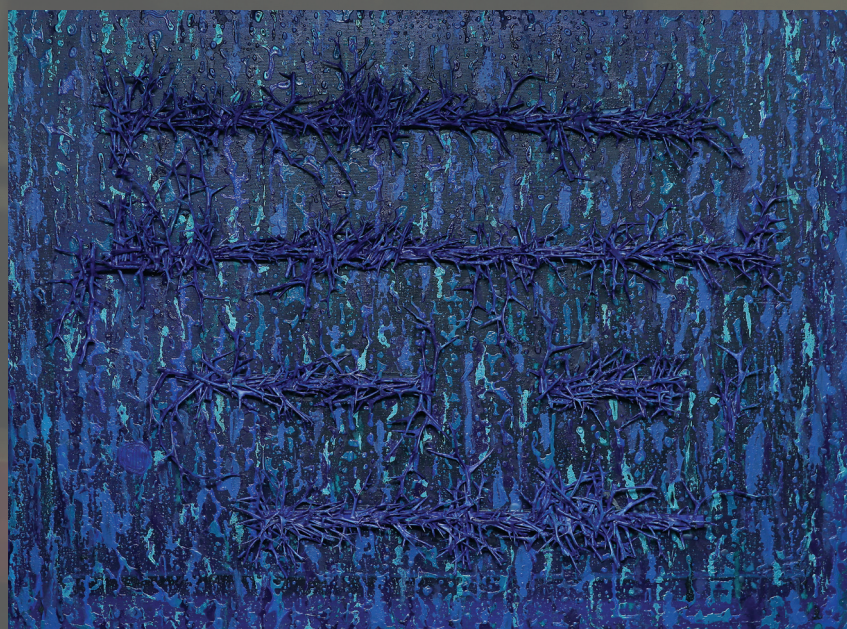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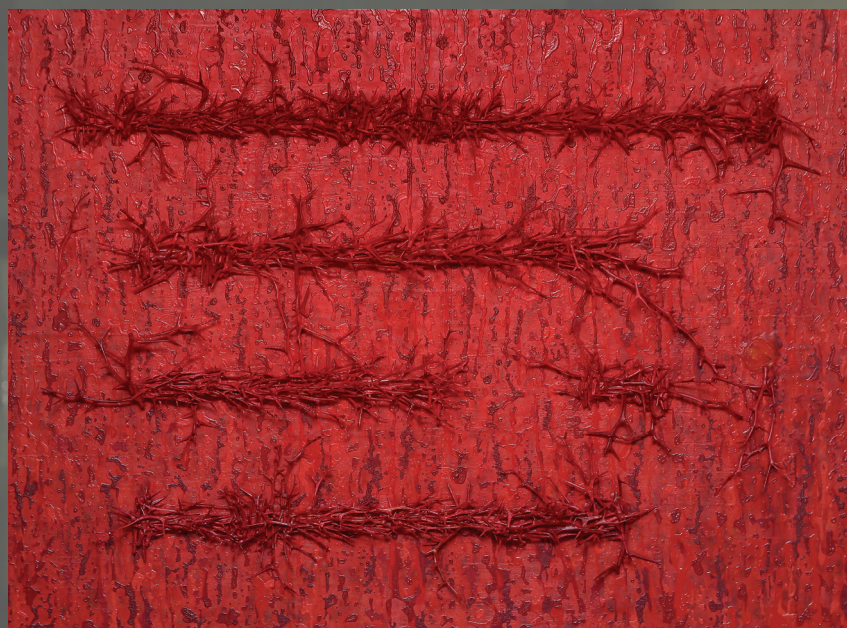
화가 김성호의 버킷리스트

화가 김성호는 자기 일에 대한 열정이 매우 강한편의 성격이다. 더러는 그런 성격으로 인해 동료, 선배들과 과 어떠한 화두로 토론하면 자기주장을 굽힘없이 너무 강하게 어필하여 마찰이 생기기도 한다. 하지만 그러한 뚜렷한 자기 신념과 표현은 작업의 완성도를 높여주는 확고한 작가 정신의 발로이라 본다.

동양화를 전공한 화가 김성호는 한때 종교적인 표현에 심취 12사도를 주제로한 입체 조형물 작업을 하여 중앙미술대상전, 동아미술대전에 우수상 및 특선을 수상하기도 했다. 최근엔 아크릴과 유화등 다양한 오브제를 혼합하여 표현하는 작업을 해왔다. 재료의 경계를 두지 않고 입체와 평면의 작업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자신의 작업세계를 자유 분방하게 표현하는 화가이다.

얼마 전 힘든 몸을 추스려 그의 형과 누나의 도움으로 그동안의 작품을 모아 개인전을 열었다. 근작에서는 탱자나무 가시를 오브제로 하여 간결하고 빠있는 주제를 표현한다. 가장 화려한 면류관을 고통으로 함께 받으셔야 했던 그분의 말씀(Logia)에 따른 고민의 흔적이 보인다. 우리가 아무리 욕심을 가져도 우주 만물에 따른 섭리를 본다면 한낱 초라한 가지만도 못할 것을 화가 김성호는 Logia 와 우주시리즈로 표현한다. 개인전 오프닝에 그토록 가슴 뜨거운 가족애를 느끼긴 처음이다. 작가는 어머니가 해주신 액자를 소회하며 목이메었다. 순간 모두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모두의 바램처럼 화가 김성호의 미래에 기적같은 회복과 함께 다음개인전을 통해 새로 태어나는 작품을 기대해본다.

지금 이시간, 화가 김성호의 버킷리스트에 다음 전시회를 준비할수 있는 새로운 Logia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한다.



사)한국미술협회 전국지회장연합회 2023년도 사업보고 총회 및 대표자 이.취임식

사 단법인 한국미술협회 전국지회장연합회 사업보고 및 대표자 이취임식을 1/12~1/13 오산시 자원봉사센터 1층 대회의실에서 오산시의 협조로 1박2일간 무사히 마쳤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제주를 포함하여 17개지회의 미술협회를 대표하는 전국회장과 임원 80여명이 참여하였고 이임하는 부산지회 박태원회장과 취임하는 경기도지회 조운희회장을 축하하기 위해 경기도의회 조용호의원, 오산시의회 전도현, 전예술의원, 경기도 31개지부 지역회장단들과 회원들이 참석하여 축하의 자리에 함께하였습니다. 2024년 한국미술협회 전국지회장연합회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4

제91회 “KEN전”

후원: 요코하마시
 일사: 2024년 5월 1일(수)~2024년 6월 6일(월)
 오프닝: 2024년 5월 3일(화) 오후 3시
 장소: 요코하마시립미술관



경기신임예총회장취임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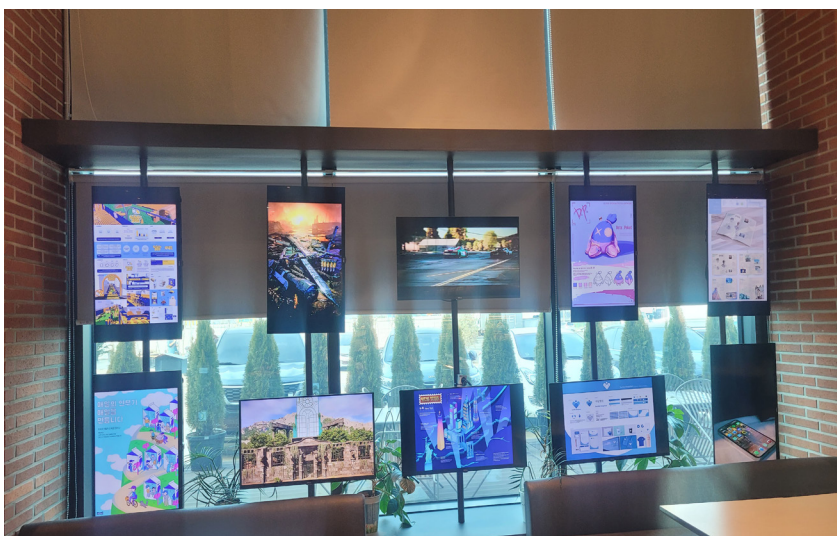


2023 제9회경기 디자인대전 수상작전시



제59회 경기디자인대전 수상작을 디지털전시로 진행하였습니다. 전시장내에 움직이는 작품과 동영상작품이 전시되었습니다. 카페인영도 하고 있어 맛있는 커피와 함께 감상하실 수 있었습니다^^ 수상자 여러분 축하 드립니다 ~♡

전시기간 2024.1.15 ~ 2.6
 전시장소 카페 에스티아 전시장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천덕산로 402)



2024 제1회 용인 라움 아트페스타
 1st Yongin Laum Art Festival 2024

- 참여작가 김형아 김구연 김성민 김수경 김형원 김정옥 린정지 김주의 김현순 김혜남 김홍선 박명원 박영수 박영진 박승미 산수희 심성규 심영희 안준효 오지은 유은상 유정민 윤수원 이경림 이서자 이은경 이현직 이희정 진지혜 정선경 조아수 조효순 최남일 최은영 현정숙 효경아 홍경림 홍경아
- 일 시 2024.1.8(월)~1.24(수)
- 장 소 갤러리 필랩 (용인특례시 처인구 이동읍 화산로 35)
- 개 막 식 2024.1.10(수) 오후 3시
- 행사내용 전시, 아티스트 토크, 작품경매, 굿즈마켓
- 아티스트 토크쇼 / 작품경매 - 2024년 1월 13일(토) · 20일(토) 오후 1시-

주최 주관 용인미술협회 후원 한국아티스트필·용인예총·갤러리필랩

주관: 용인미술협회
 후원: 한국아티스트필, 용인예총, 갤러리필랩
 일사: 2024년 1월 8일~1월 24일
 아티스트토크, 작품경매, 굿즈마켓 (2024년 1월 13일(토), 20일(토) 오후 1시)
 장소: 갤러리필랩

경기미협 지부소식

안성미술협회 정기전 2024.4.17.

제27회 안성미술협회 회원 정기전을 축하드립니다

안성맞춤아트홀 2024.4.17



제49회 안양미협정기전 2024.04.08

제49회 안양미술협회 정기전을 축하드립니다

2024.04.08~04.12 평촌아트홀



용인미술협회 정기전 2024.4.23

용인미술협회 정기전을 축하드립니다~!!



하남미술협회 정기전 2024.4.25

하남미술협회 정기전을 축하드립니다~!!



제3대 연천지부 이순덕회장 이.취임식

연천미술협회 제3대 이순덕회장님 축하를 드립니다~!!



제41회 경인미술대전 시상식 2024.04.06

부천미술협회가 주관하는 제41회 경인미술대전에서 수상하신 모든 분들께 축하를 드립니다~!!



경기미술협회에서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생활미술인회를 설립하여 운영하고있습니다.

경기도내에서 새롭게 미술에 관심을 갖고 배우시는 분들을 위하여 미술정보와 활동 등을 제공하며 연간 활동사항으로 1.전시회 개최 2.재료학 세미나 개최 3.현대미술 이해하기-미술사 알아보기(이론) 4.회원간 친목활동을합니다

- * 회원가입 서류 (가입원서 제출처 artkk4@daum.net 모든서류는 PDF파일로 작성하여 E-mail로 접수.)
 - 1.가입원서작성 1매. 2.경기도 소재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재직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중 택 1(전입, 재직, 계약기간 1개월 이상 경과)
- * 회비 / 입회비 30만원 년회비 10만원 (심의 후 개별통보)
- ※ 경기미협회원은 수원대학교 미술대학원 등록금 50% 혜택이 있습니다.



경기북아트에서 다양한 미술관련 정보와 전시홍보까지 한 번에

전시 콘텐츠 공유 플랫폼 경기 LOOK-ART

발행인 조운희
 편집장 김재덕
 편집위원 이주혜
 발행처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경기도지회
 제1사무실 16488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307번길 20 (경기도문화의전당 내) T. 031-239-0083
 제2사무실 18131 경기도 오산시 오산천로 271(오산문화스포츠센터 내 4층)
 회장 조운희 010-2364-6185 / 사무처장 김은정 010-3719-6896

홈페이지 http://klookart.org
 디자인 본스페이스
 제작처 (주)미성아트

사)경기미술협회가 발행하는 미술전문 계간지 <경기북아트_GGLA>지 무료구독 안내

1년에 4회, 우편요금 10,000원을 계좌로 입금해주시고, 이름, 소속지부, 연락처,주소를 이메일이나 문자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요금 입금계좌
농협 301-0310-219521
예금주 한국미술협회 경기도지회

신청이메일 & 연락처
E-mail: artkk4@daum.net
사무처장: 김은정 010-3719-6896